

고구마의 이동을 통해 본 16-18세기 동아시아 각국의 해양인식*

김인희**

| 목 차 |

I. 서론	특징과 동아시아 각국의 의 해
II. 동아시아 각국의 고구마 유입 과정	양인식
1. 중국의 고구마 유입 과정	1. 고구마의 유입과정에 나타난 특징
2. 일본의 고구마 유입 과정	2. 고구마의 유입을 통해 본 동
3. 한국의 고구마 유입 과정	아시아 각국의 해양인식
III. 고구마의 유입 과정에 나타난	IV. 결론

| 논문요약 |

16-18세기는 세계가 해양을 통해 교류를 하던 시기로 고구마는 서구열강이 동쪽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동양사회에 전해진다. 고구마가 처음 전해진 곳은 중국 난아오도(南澳島)로 1584년의 일이다. 이후 일본의 류큐에는 1597년에 전해지며 쓰시마에는 1715년에 전해지고 조선에는 1763년에 전해진다. 고구마가 동양 삼국에 전해지는 과정에 나타나는 특징은 동남아시아에서 점점이 이어진 도서지역을 징검다리 삼아 느린 속도로 이동하였으며 고구마가 가장 먼저 재배된 곳은 도서지역이며 고구마의 이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이들은 모두 해양세력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구마의 유입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당시 동아시아 각국의 해양인식과 해양정책을 파악할 수 있다.

중국은 지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고구마의 유입에 있어 가장 유리한 위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9-361-A00007).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치에 있었으나 명청시기의 계속된 해금정책으로 인하여 푸젠성(福建省)의 고구마가 저장성(浙江省)의 저우산도(舟山島)로 전해지지 못하고 오히려 일본에서 역수입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단순히 고구마의 유입에 있어 나타난 특징이 아니라 해금정책이 새로운 문물의 수용에 있어 장애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조선의 경우 조공책봉체제의 틀 속에서 명청보다 더 강력한 해금정책을 실시하고 육로를 통해 중국과 제한적인 교류만을 하여 세상에서 가장 알려지지 않은 은둔의 나라가 되었다. 결국 고려시기에는 5월이면 도달할 수 있었던 고구마가 조선시대 중후기에는 179년이 걸려 도달하는 결과를 낳았다. 일본의 경우 화이정신(華夷精神)을 배제하고 오랑캐에게도 배워야 한다는 정신으로 개방적인 해양정책을 실시하여 고구마와 같은 새로운 문물이 이른 시기에 도달할 수 있었다.

결국 각국의 해양인식은 고구마와 같은 중요 작물, 즉 선진문물의 수용에 대한 시각의 차이를 낳았고 결국은 각국의 운명을 갈라놓았다.

▪ 주제어: 고구마, 서구열강, 동아시아, 도서지역, 해양인식

I. 서론

16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는 시기는 동아시아가 중세 봉건사회에서 근대 자본주의사회로 이행하는 시기이면서 고구마가 동아시아로 유입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15세기부터 세계는 바다를 통해 연결되기 시작하였는데 유럽인은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의 풍향과 조류체계를 파악함으로써 세계를 연결시켰다. 해로를 통한 교역이 본격화된 것은 신대륙의 발견, 해로를 통한 무역의 경제성, 원자재와 상품시장의 개척이라는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였는데 대체적인 경향은 서구열강의 동양진출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16-18세기는 처음으로 동양과 서양이 대대적으로 교류를 한 시기로 이제 아시아와 유럽대륙이 독자적으로 발전하는 시기는 끝이 났음을 의미한다.

곽상수(2013)는 고구마의 전래노선으로 3가지를 소개하였다. 하나는 바

타타 루트(Batatas Rout)로 콜럼버스가 1492년 신대륙을 발견하고 스페인으로 귀환할 때 옥수수, 담배 등과 함께 고구마를 서부 유럽에 처음으로 소개했으며, 이후 1565년 스페인이 필리핀의 루손(Luzon)을 식민지화하면서 선원들이 비상식량으로 가져왔던 고구마가 필리핀으로 전파되었다는 것이다. 카모테 루트(Kamote Rout)는 16세기 이후 스페인 사람에 의해 멕시코에서 하와이, 괌, 필리핀으로 전파됐다는 설명이다. 쿠마라 루트(Kumara Rout)는 유럽인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기 이전에 이미 고구마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으로 남미 페루에서 이스터섬, 뉴질랜드, 하와이로 전파된 뒤 폴리네시아, 뉴기니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즉 고구마를 전수받은 하와이 등 폴리네시아 지역 사람들이 항해를 하면서 고구마가 같이 퍼졌다는 것이다. 이 중 가장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바타타 루트이다. 중국학자 중에는 “미주에서 필리핀의 루손으로 운항하는 배들이 배가 뒤집히는 것을 방지하고 선상에서 식량으로 충당하기 위해 고구마를 싣고 왔다.”(陳立立 2007, 28-29)는 견해를 주장한 바 있다.

미주대륙과의 해상무역을 통해 옥수수, 감자, 카사바(cassava), 호박, 땅콩, 해바라기, 고추, 토마토, 강낭콩, 라이머빈(lima bean), 서양사과, 파인애플, 설당사과(Annona squamosa), 구아바(guava), 유리(油梨, Pereaamericaa), 캣슈넛(Anacardium occidentale), 카카오, 서양인삼, 파파야, 육지면 등과 같은 30여 종의 작물이 중국으로 들어왔는데 이 중 한국에는 옥수수, 감자, 고구마, 호박, 땅콩, 해바라기, 토마토, 강낭콩, 고추 등이 전해졌다. 이 중 옥수수, 고구마, 감자는 구황작물로서 인구성장을 통하여 자본주의 공업생산을 위한 대량의 노동력과 소비시장을 제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작물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고구마의 이러한 효능 때문에 중국에서는 금서(金薯)라 불리기도 하였으며 일본의 쓰시마(對馬島)에서는 효자마(孝子麻)라고 불렀다. 한국의 경우도 조엄(趙巖)은 『해사일기(海槎日記)』에서 ‘고귀마(古貴麻)’라고 표기하여 고구마의 구황작물로서의 가치를 매우 중요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경우 고구마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영향이 없었으나 200년 후 청나라 중후기에 이르러 양식부족 현상을 해결하였으며 이는 폭발적인 인구성장으로 나타났다. “고구마를 비롯한 구황작물이 인구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은 이미

여러 연구자에 의해 논의된 바 있다.”(何炳棣 1985; 葛劍雄 1991; 王育民 1995; 姜濤 1998)

고구마는 단순히 구황작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동양사회가 서구와의 교류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선진문물¹⁾ 중의 하나라는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고구마의 유입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동아시아 각국이 이들 선진문물을 어떠한 방식으로 인식하고 대처하였는가를 살펴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동아시아 각국의 고구마의 유입과정을 통해 각국의 해양인식의 차이점에 대해 논의해 보고 이러한 해양인식이 이후 각국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동아시아 각국의 고구마 유입 과정

1. 중국의 고구마 유입 과정

중국의 고구마 명칭은 40여 가지에 이르는데 그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홍수(紅薯), 간수(甘薯), 판수(番薯)이다. 홍수는 “붉은 색의 마”라는 뜻이고, 간수는 영문명인 sweet Potato를 번역한 것으로 고구마의 단맛을 특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판수는 “외국에서 수입된 마”라는 뜻으로 명나라 시기 푸젠성(福建省) 순무(巡撫)였으며 고구마 보급에 많은 공을 세운 김학증(金學曾)은 『해외신전칠칙(海外新傳七則)』에서 “고구마는 외국에서 전해졌기 때문에 판수라고 한다.”²⁾고 밝히고 있다.

고구마의 유입에 대한 중국 내 연구는 상당히 이루어졌는데 서술 내용은 대체로 유사하다. 이와 같이 연구자들이 유사한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고문현상의 자료를 기반으로 고구마의 유입 과정을 연구하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국 학계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반

1) 고구마가 선진문물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고구마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작물로 그 사회의 변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물이라는 측면에서 ‘선진문물’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2) 金學曾, 『海外新傳七則』: “薯傳外番 因名番薯.”

으로 필자의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베트남에서 광둥성으로 유입된 경우이다. 진익(陳益)이 안남(安南)에서 광둥성의 동완현(東莞縣)으로 유입한 예와 임회란(林懷蘭)이 교지(交趾)에서 광둥성으로 유입한 예가 있다. 안남과 교지는 모두 베트남을 지칭한다. 『봉강진씨족보·진익전(鳳岡陳氏族譜·陳益傳)』에 의하면 “진익이 안남으로 가 두목의 생일잔치에서 고구마를 먹고 맛이 달고 좋다고 생각하여 노비에게 재물을 주고 종자를 얻었으며 두목의 추격을 피하여 1582년 여름에 집에 도달하였다.”³⁾고 한다. 이 자료는 후손들이 족보에 기록한 것으로 1869년에 출판된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1892년 출판된 『전백현지(電白縣志)』 권30에 의하면 “고구마는 교지에서 생산되는데 중국으로 종자를 들여오는 자는 사형에 처하였다. 오천인 임회란은 훌륭한 의사로 교주지역을 여행하였는데 국왕의 딸을 치료하여 병이 나왔다. 하루는 쥘 고구마를 주었는데 임회란은 날 고구마를 요구하여 가지고 돌아와 광둥성 일대에 심었다.”⁴⁾고 한다. 1920년 출판된 『계평현지(桂平縣志)』 권19에 의하면 “고구마는 명나라 만력년간에 고주(高州) 사람 임회란이 외국에서 종자를 가지고 들어왔다.”⁵⁾고 한다. 위의 기록 중 『봉강진씨족보·진익전』은 287년 이후 후손들에 의해 족보에 기록되었으며, 『전백현지』도 근 300년 이후에 기록되었다. 또한 두 자료 모두 전기적 요소가 강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문헌상의 내용을 모두 신뢰하기는 힘들다.

두 번째는 필리핀에서 푸젠성으로 유입된 경우이다. 진진룡(陳振龍)에 의해 장락(長樂)으로 유입된 경우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 의해 장주(漳州)로 유입된 경우가 있다. 진진룡의 7대손인 진세원(陳世元)은 진진룡의 아들인 진경륜(陳經綸)이 쓴 『헌번서찰첩(獻番薯察帖)』을 인용하여 『금

3) 『鳳岡陳氏族譜·陳益傳』: “萬曆庚辰 客有泛舟之安南者 公偕往 比至 酋長延禮賓館 每宴會輒饗土產曰薯者 味甘美 公凱其種 賄于酋奴 獲之。-----酋以夾物出境 摩兵逐捕 會風急帆揚 追莫及。壬午夏 乃抵家焉。”

4) 『電白縣志』 卷30 「記述」 光緒 18年版: “相傳番薯出交趾 國人嚴禁 以種入中國者罪死 吳川人林懷蘭善醫 薄游交州 醫其關將有效 因薦醫國王之女 病亦良已。一日 賜食熟番薯 林求食生者 懷半截而出 亟辭歸中國。過關爲關將所詰 林以實對 且求私縱焉。關將曰今日之事 我食群綠 縱之不忠。然感先生之德 背之不義 遂赴水死。林乃歸 種遍于粵。”

5) 『桂平縣志』 卷19: “蕃薯 自明萬曆間 由高州人林懷蘭 自外洋挾其種回國。”

서전습록(金薯傳習錄)』을 1776년에 편찬하였는데 이 책에서 진진룡이 필리핀의 루손에서 고구마를 유입한 과정을 기록하였다. “1593년 푸젠성 사람 진진룡은 필리핀의 루손에서 고구마씨를 가지고 귀국하여 순무 김학증에게 바치고 파종법을 전하여 푸젠성 남부지역에 고구마가 있게 되었다. 이때부터 푸젠성의 여러 곳에 심어 구황을 하였는데 백성들에게 이익이 있어 고구마를 금서(金薯)라고 하였다.”⁶⁾ 진진룡은 필리핀 루손에 살던 교민으로 현지에서 고구마가 생산량이 높다는 것을 알고 현지인에게 기술을 배우고 고구마씨를 가지고 와서 고향에 심어 고구마가 푸젠성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1613년 황사신(黃士紳)이 편찬한 『혜안현속지(惠安縣續志)』 권1 「물산속찬(物産續纂)」에는 “고구마는 외국에서 종자가 난 것으로 5-6년 전에 어떤 사람이 해외에서 가져와 처음 장주에 심었다.”⁷⁾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은 5-6년 전 현지의 상황을 기록한 것으로 매우 신뢰할 수 있으며 장주 일대에서 고구마가 1607-1608년경에 재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나라 초에 푸젠성 안찰사(按察使)와 포정사(布政使)를 역임했던 주량공(周亮工)이 1666-1668년 사이 편찬한 『민소기(閩小記)』 권3에 “만력년간에 푸젠성 사람이 외국에서 고구마를 얻었는데 처음에는 장주에 심었으며 점점 천주(泉州)와 보전(莆田)에도 심게 되었고 최근에는 장락(長樂), 복청(福清)에서도 모두 심고 있다. 푸젠성의 남쪽에는 루손국이 있는데 푸젠의 많은 사람들은 루손국과 무역을 하였으며 고구마가 처음 푸젠성에 들어왔을 때 기아가 들었는데 사람들은 고구마를 먹고 기아를 벗어났다.”⁸⁾고 한다. 『민소기』에 의하면 장주에 처음 고구마가 들어오고 이후 장락 지역에도 퍼졌다고 하여 진진룡이 장락지역으로 처음 고구마를 들여왔다는 기록과 배치된다. 아마도 푸젠성의 고구마는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다양한 노선을 통해 유입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대체로 1590년대에서 1600년대 초반에 유입

6) 『金薯傳習錄』: “萬曆二十一年 閩人陳振龍由呂宋持薯藤種以歸 獻之巡撫金學曾 并傳其種法 于是閩南始有番薯. 自是以來 廣植閩中 大救歲荒 民得其利 遂稱之爲金薯.”

7) 『惠安縣續志』 卷一 「物産續纂」: “番薯 是種出自外國. 前此五六年間 不知何人從海外帶來 初種在漳.”

8) 周亮工, 『閩小記』 卷三: “萬曆中 閩人得之外國 瘠土砂磧之地 皆可以種 初種于漳郡 漸及泉州莆 近則長樂福清皆種之. 蓋渡閩而南有呂宋國----閩人多賣呂宋島焉. 其國有朱薯----其初入閩時 值歲飢 得是而人足一歲.”

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일본에서 저장성(浙江省)의 저우산도(舟山島)로 1595년 유입된 경우이다. 허빙리(何炳隸 1979, 23)에 의하면 “1595년에 간행된 『보타산지(普陀山志)』 중에 ‘고구마는 일본에서 왔으며 맛이 좋다.’⁹⁾라는 기록이 있다.”고 한다. 귀쑹이(郭松義 1986, 45)는 베이징에서 1595년 출판된 『보타산지』를 찾았으나 찾을 수 없었고 주응빈(周應賓)이 1607년 편찬한 『보타산지』만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허빙리 교수가 미국도서관에 소장된 3,500종의 중국지방지 중에 위의 자료를 찾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1595년에 출판된 『보타산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귀쑹이는 “저장성에서 고구마를 재배한 것은 윈난(雲南), 광둥보다 늦고, 푸젠과는 대체로 비슷함을 알 수 있다. 푸젠성보다 이를 수도 있는데 『금서전습록』에서 말하는 것은 유입된 시기이나 『보타산지』는 재배된 연대로 들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장성이 더 이를 수도 있다.”(郭松義 1986)고 하였다.

왕젠푸(王建富 2002)는 천차오이(陳橋驛 1994)의 글을 인용하여 “주응빈(周應賓)이 1607년 편찬한 명나라 만력년간의 『보타산지』 권4의 “고구마는 산약과 비슷하며 자색이고 맛이 달며 일본으로부터 들어왔다.”¹⁰⁾라는 기록을 근거로 광둥성과 푸젠성의 기록은 후대인이 작성한 것으로 신뢰성이 떨어지며 『보타산지』의 기록은 당시 재배하던 작물을 기록한 것으로 저우산에서는 1607년보다 10-20년 전에 고구마를 재배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저우산이 중국에서 최초로 고구마를 재배한 지역이라고 하였다.

네 번째는 서양배인 온릉양박(溫陵洋舶)에서 광둥성의 난아오도(南澳島)에 심고 그후에 푸젠성의 동산현(東山縣)으로 유입된 경우이다. 공현중(龔顯曾)은 『역원좌독(亦園坐牘)』 권6에서 소염(蘇琰)의 『주여소(朱蘋疏)』의 기록을 인용하여 “1584년과 1585년 사이에 장주(漳州)와 조주(潮州) 사이에 있는 난아오도는 온릉양박(溫陵洋舶)이 지나는 길이었는데 고구마를 가지고 돌아왔다. 진강(晉江) 오도(五都)의 영수향(靈水鄉)에서 정원에 심어 잎사귀를 구경하였다. 1587-1588년 사이 주변 마을에 퍼지기 시작하였

9) 『普陀山志』: “番薯來自日本 味甚甘美.” 허빙리는 문장 중의 ‘番薯’를 고구마로 보았다.

10) 『普陀山志』 卷4: “番薯 如山藥而紫 味甘 種自日本來.”

는데 마른 땅에 심어놓고 이국의 물건으로만 생각하였다. 1594년과 1595년 사이 온릉(溫陵)지역에 가뭄이 들어 곡물이 비싸 고구마에 의존하여 생활을 하였다.”¹¹⁾고 한다. 오도(五都)는 지금의 동산현으로 푸젠성과 대만해협 서안에 있는 동산도(東山島)를 말한다. 온릉은 푸젠성의 취안저우(泉州)로 소염은 고구마가 유입되던 당시 취안저우에서 거주한 현지인이다. 그는 1609년 향시에 합격하고 1613년 진사가 된 사람으로 그가 저작한 『주여소』의 기록은 믿을 만한 것이다. 『동산현지·민국교본(東山縣志·民國稿本)』에서도 장인룡(張人龍)의 『번서부(番薯賦)』를 인용하여 “오도(五都)의 고구마는 명나라 만력 초년에 시작되었다.”¹²⁾고 하여 다른 지역이 일반적으로 만력년간(1573-1620년)에 유입된 것보다 이른 시기에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의 기록을 정리해 볼 때 중국에서 고구마가 처음 유입된 지역은 난아오도이며, 시기는 1584년임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문헌상의 기록을 통해 고구마의 유입시기를 논한 데 반하여 천리리(陳立立)는 고구마의 유입은 필리핀과의 도자기무역의 부산품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1565년부터 스페인은 대량의 도자기와 비단을 사서 미주로 운반하였는데 중간무역지가 필리핀의 루손이었으며 루손에서 푸젠성으로 돌아오는 배들은 빈 배가 뒤집히는 것을 방지하고, 양곡을 운반하는 선박으로 위장하기 위해 고구마를 싣고 왔다. 따라서 고구마가 처음 중국으로 들어온 해는 1565년이라고 주장하였다.”(陳立立 2007) 그러나 대부분의 문헌상의 기록에서 고구마가 재배된 시기를 만력년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565년 이후 고구마가 유입되어 식용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재배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11) 龔顯曾, 『亦園脞牘』 卷六: “萬曆甲申乙酉間 漳潮之交有島曰南澳 溫陵洋船道之 携其種歸 晉江五都 鄉曰靈水 種之園齋 苗葉玩而已 至丁亥戊子 乃稍及旁鄉 然亦置之 磽確 視爲異物 甲午乙未間 溫陵飢 他穀皆貴 惟菘獨稔 鄉民活于菘者十之七八 由是名曰朱菘.”

12) 『東山縣志·民國稿本』: “本邑之有番薯 始于明萬曆初年 据張人龍『番薯賦』其序云‘五都之薯 自萬曆初 銅山寨把總張萬紀出汎南澳 得于洋船間.’”

<표 1> 문헌상에 나타난 고구마 유입 관련 사항

순서	원산지	파종지역	파종시기	유입한 사람	기록 문헌	
1	베트남	광 동 성	東莞縣 鳳岡鄉	1582년	陳益	『鳳岡陳氏族譜·陳益傳』 (1869년)
2		電白縣 霞洞鄉	만력년간 (1573- 1620년)	林懷蘭	『電白縣志』 卷30(1892년), 『桂平縣志』 卷19(1920년)	
3	필리핀	푸 젠 성	張樂縣	1593년	陳振龍	『金薯傳習錄』(1776년)
4		漳州	1607년	모름	『惠安縣續志』 卷一 『物產續纂』 (1613년)	
5	溫陵洋舶	광 동 성	南澳島	1584년	모름	『亦園陸續』 卷六(1878년)
6	일본	저 장 성	舟山	1595년 이전	모름	『普陀山志』 卷四『朱菡疏』(1607년), 『普陀山志』(1595년)

2. 일본의 고구마 유입 과정

일본의 고구마는 중국 푸젠성의 푸저우(福州)에서 오키나와로 유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입된 과정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고구마가 처음으로 상륙한 곳은 오키나와본도(本島)에서 남서쪽으로 320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미야코지마(宮古島)라는 것이다.”(内林政夫 2006, 1348; 노성환 2010, 545 재인용) “1597년 이곳의 두역장진씨(頭役長眞氏)인 스나가와신야(砂川旨屋)가 당시 나카야마(中山)에서 돌아가던 중 역풍을 만나 중국에 표착하였고, 그곳에서 고구마를 구해 돌아가 고향땅에 심었으며, 이를 퍼뜨려 기근을 모면했다. 그러나 미야코지마가 워낙 본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오키나와 본도까지는 전해지지는 못했다.”(坂井健吉 1999, 33; 노성환 2010, 545 재인용)고 한다. 다른 하나는 류큐국의 쇼네이왕(尙寧王 1589-1620년)의 명을 받아 진공선(進貢船)

을 타고 중국으로 간 노쿠니총관(野國總官)이 푸젠성에서 고구마종자와 재배법을 배워와 전파하였다는 것이다. 노쿠니총관은 자탄군(北谷郡) 노쿠니읍(野國邑) 사람으로 45세 때인 1605년 푸저우(福州)에 이르러 고구마의 재배법을 배워 오키나와로 유입하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류큐국의 역사서인 『큐우요·쇼네이왕(球陽·尙寧王)』에 전하고 있다.

17년(1605년) 노쿠니총관이 중국에서 고구마를 가지고 와서 나라에 심었다. 노쿠니총관은 노쿠니읍 사람으로 고구마를 화분에 심어 가지고 왔다. 기마신조(儀間眞常)는 이 소식을 듣고 가서 고구마싹을 얻기를 부탁하였고 또한 그 재배법에 대해서도 물었다. 노쿠니총관은 그에게 “고구마줄기는 감겨 있으며 이것을 땅에 심는데 충분히 자랐을 때 캐서 먹으면 된다”고 알려 주었다. 요시마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재배를 하여 몇 년이 지난 후에는 고구마가 크게 번성하였다. 한 해는 흉년이 들어 오곡이 나지 않아 사람들은 기아에 굶주렸는데 요시마는 고구마를 캐서 굶주린 사람들을 구제하였다. 이때 고구마는 오곡을 보충하여 이 나라의 진귀한 보물이 되었으며 이보다 더한 것이 없었다. 즉시 고구마줄기를 잘라 들에 파종하였고 15년이 지나 사람들은 모두 고구마가 끼니를 대신할 수 있는 음식임을 알았고 나라 안에 널리 퍼졌다. 최근에 이르기까지 노쿠니항(野國港)의 서쪽 동굴 안에 돌로 당을 짓고 노쿠니신(野國神)의 유골을 봉안하였으며 매년 2차례 제사를 지내고 있다. 노쿠니(野國), 노자토(野里), 스나베(砂邊) 등 세 읍의 사람들은 2-3월 중에 길일을 택하여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고 있다. 오로쿠군(小祿郡) 기마(儀間) 사람들은 기마아키비라(儀間赤平)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이 또한 노쿠니총관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라 한다.¹³⁾

13) 『球陽·尙寧王』: “十七年 總官野國自中華帶來蕃薯以播于國. 總官野國 野國邑人 自中華蕃薯植于盆上而帶來. 麻平衡(儀間親方眞常)聞之 往乞其苗 且問栽培之法. 野國告之曰 ‘蕃薯條爲圈 埋之於地. 已當實熟之時 掘以食之.’ 平衡如其言 以爲栽植 歷乎數年 蕃薯繁多. 一年凶荒 五穀未登 民人饑饉 平衡掘用蕃薯 賑濟人民. 時念蕃薯以補五穀 本國珍寶 莫大於此焉. 卽切蕃薯條 播之於野 歷至十五年間 人皆知蕃薯以充飯食 廣敷國中矣. 至于近世 於野國港西地洞中 創建石堂 奉安野國神骸于其中 每年二次祭祀之. 亦野國, 野里, 砂邊等三邑人民 二月中 擇吉祭祀其墓 以祈豐年. 亦小祿郡儀間人民 致祭于儀間赤平 以報野國之恩也.”

위의 내용으로 보아 노쿠니총관은 고구마를 푸저우로부터 유입하였으나 실제 고구마 보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기마신조임을 알 수 있다. 고구마는 흉년을 맞이하여 더욱 광범위하게 재배되었는데 이는 중국의 경우와 일치한다. 오키나와는 산호초로 이루어진 섬으로 토양이 건조하여 고구마의 재배에 적당하여 유입된 지 15년 후인 1620년에는 광범위하게 재배되었다.

“류큐왕국은 1609년 5월 사쓰마(薩摩) 번주 시마즈이에히사(島津家久)가 3,000명 군사를 동원, 원정하여 정복당했으며 류큐에서 널리 재배되고 있던 이 작물은 1609년 이후 자연히 사쓰마번(薩摩藩)과 류큐 간의 인적, 물자교류가 빈번해져 다시 사쓰마(가고시마)에 전해졌다.”(김재승 2001, 101-102) 노성환에 의하면 “고구마가 가고시마에 전해진 것은 1625년으로 이 루트는 사적인 것이며 공식적인 것은 1698년 류큐국의 나카야마왕(中山王) 쇼테(尚貞)가 타네가시마(種子島)의 19대 영주인 타네가시마히사모토(種子島久基)에게 고구마 한 바구니를 보낸 것이다. 또 고구마는 가고시마 외에 큐슈 서북부인 나가사키에도 상륙했는데 이 경우에는 영국인에 의해 전해진 것으로 영국상관장이었던 리차드룩스의 일기에 의하면 1615년과 1618년에 나가사키에 고구마를 심었다는 기록이 있다.”(노성환 2010, 546-547)고 한다.

“1715년 하라다사부로우에몬(原田三郎右衛門)에 의해 고구마는 사쓰마에서 쓰시마(對馬島)로 이식되었다.”(上野益三 1973, 301; 潘吉星 1992, 239 재인용) “쓰시마에서는 고구마를 처음 구해 온 사람에게 각 집에서 해마다 5전씩 주어 공을 갚았다.”¹⁴⁾고 한다. “큐슈에서 혼슈(本州)로 전해진 시기는 1731년 기근에 효과가 있다는 진언을 들은 이토마사아키(井戸正明)라는 사람이 고구마종자 100근을 수입하여 재배하게 됨으로써 전해지게 되었다. 사람들이 그를 ‘고구마대관(大官)’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러한 데서 연유된 것이다. 이러한 고구마의 효능이 결국 1735년에 에도막부(江戸幕府)에 전해지게 되었는데 당시 막부의 건축재정을 위해 개혁을 추진 중이던 장군 요시무네(吉宗)는 즉시 고구마를 재배토록 명령했다. 그리하

14) 柳重臨, 『増補山林經濟』 卷二 「甘藷種植法 自倭國傳來」: “初得來之人自島中每戶聚五文錢歲給此人報其功云.”

여 고구마는 급속히 관동지역 일대로 보급되었으며 이후 계속되는 기근으로 말미암아 고구마의 전국적인 확대 재배는 가속화되었다.”(김승일 2008, 41-42)

위의 논의를 통하여 1597년 오키나와에 처음 고구마가 전래되었으며 1615년에는 큐슈에, 1715년에는 쓰시마에, 1735년에는 혼슈에 전해졌음을 알 수 있다.

3. 한국의 고구마 유입 과정

1766년 출판된 『증보산림경제』에 의하면 “고구마[甘藷]는 주저(朱藷), 번저(番藷), 주서(朱薯), 홍산약(紅山藥)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적우(赤芋)라 하며 민간에서는 유리우(琉璃芋) 또는 장기우(長崎芋)라고도 부른다. 유리국(琉璃國)에서는 고구마를 번여(番茹)라고 부른다.”¹⁵⁾고 하였다. 주저는 “붉은 마”라는 뜻이고, 번저는 “외국에서 들어온 마”라는 뜻이며, 홍산약은 “붉은 색의 산마”라는 뜻이다. 대체로 고구마를 마의 일종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유리우는 유구우(琉球芋)의 오자¹⁶⁾로 고구마가 오키나와지역에서 활발하게 재배되었음을, 장기우는 고구마가 나가사키 일대에서 활발하게 재배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고구마에 대한 조선의 최초의 관심은 1633년경에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종저방(種藷方)』의 총론(總論)편에 의하면 “1633년 비변사에서 고구마의 보급에 노력한 내용이 적혀 있다.”(김영진 1982, 112) 『오주연문장전산고』에는 “현종 4년(1663년)에 남해현(南海縣) 사람 김려휘(金麗輝) 등이 류큐에 표류하였을 때 채소가 하나 있었는데 우미(牛尾)라고 하였다. 껍질은 붉은 색이고 살은 흰 색으로 삶아서 먹으며 맛은 마와 같았다.”¹⁷⁾는 기록이 있다. “김려휘는 흉년으로 인하여 제주에 들어가 밥을 빌어먹다가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 배 안에서 10여 일 동안 표류하여 류큐에 도

15) 柳重臨, 『增補山林經濟』 卷二 「甘藷種植法 自倭國傳來」: “甘藷一名朱藷 又番藷 又朱薯 又紅山藥. 今云赤芋 俗云琉璃芋 又長崎芋 琉璃國稱爲番茹.”

16) 琉璃芋는 琉球芋의 오기로 『種藷譜』에서는 琉球芋라고 쓰여 있다.

17)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萬物篇·草木類·穀種」: “我顯廟四年癸卯 南海縣民金麗輝等 漂至琉球大島 有一菜 名曰牛尾. 皮赤肉白 蒸食 味如薯蕷.”

달하였다가 1663년 3월 바람에 맞추어 배를 출발시켜 부산으로 돌아왔는데”¹⁸⁾ 그 과정에 류큐에서 고구마를 먹어 보았으나 가지고 와서 심지는 않았다. 김려휘가 고구마를 접한 기록은 『연경재전집(研經齋全集)』에도 전하고 있다.¹⁹⁾

고구마의 구황작물로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노력한 사람은 100년 지난 이후의 이광려(李匡呂)이다. 이광려는 1762년에 『서군방보후(書群芳譜後)』를 저술해 고구마의 재배와 보급을 주장하였으며 『이참봉집(李參奉集)』 권4에서는 고구마 종자를 얻기 위해 노력한 과정과 재배에 성공한 이야기를 적어 놓았다. “명나라 서광계가 지은 『농정전서(農政全書)』에는 고구마 재배에 관한 서술이 많으나 종묘를 구할 수 없다가 1762년 인척인 서지수(徐志修)가 호조판서로서 연행사가 되어 가게 되자 고구마 종자를 구해 올 것을 부탁하였으나 오는 중에 고사해 버리고 말았다. 동래와 부산 일대에는 고구마인 줄 모르고 재배하는 농가가 필연 있을 것이라 믿어 이 뜻을 강계현에게 말하였더니 그가 찾아갔으나 얻지 못하고 일본에 갔던 사신이 가지고 온 것을 밀양 현감의 주선으로 한 뿌리를 구하였다. 이광려 스스로 심었으나 종자를 얻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이 무렵 동래 부사로 강필리가 부임했는데 이 사람에게 얻어 나누어 심은 고구마가 퍼지기 시작하였으니 이때가 1765년이다.”²⁰⁾

18) 『顯宗改修實錄』四年(1663年)七月六日: “漂風人金麗輝等 自日本還. 麗輝等海南人 因歲飢入濟州丐食. 歸時遇風漂流 在舟中十餘日 因飢渴斃者四人 餘二十八人以上 年十月 漂泊一島 則居民皆長髮 知爲我人 以糜粥救之 留三 押至官府 則長髮削髮者 相雜而居. 蓋是琉球屬島 而號稱大島 今爲薩摩倭人所奪云. 別造一舍 處之野外 給以糧饌衣資 但言來歲三月 得南風乃得歸 禁不得出入. 而見琉球之人 衣服寬大 不冠而常時帶劍 與倭人同. 節氣無冬無夏 居民農作 以八九月播種 正二月移秧 六七月收穫云. 是年三月 待風發船 歷薩摩長崎兩島 以五月到對馬島 所歷皆給衣糧 而馬島特優 六月十五日 隨差倭回泊釜山.”

19) 成海應, 『研經齋全集』外集 卷五十九 「筆記類·蘭室譚叢」: “顯宗四年 海南縣民金麗輝等 漂至琉球國獲還. -----泊于琉球國時 麗輝等甚飢 島人與牛毛菜 皮赤肉白 味如薯蕷.”

20) 李匡呂, 『李參奉集』卷四: “考之農政全書 書中所說甘藷典故及種植留種之方 累千萬言 念如得此物 爲東國之植. 其利益有不可勝言 顧恨無由致之 嘗試語之譯流. 一再使行 並無所見聞而歸. 最後所傳如有近似者 徐相一之適爲戶判 爲囑使行必得之 歸至中路啓視之 皆槁矣. 念此物求之於北 既不易致之. 倭中必有之久矣 凡中國物貨及書籍 倭中必先得之. 況此本是南產耶 既而聞倭中所有者. 其根植枝莖 形色味性 十分是藷也. 適有故人子隨信使往日本者 余爲勤托之. 其明年春 余夜坐 姜生在側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 “고구마는 루손에서 왔으며 중국에 널리 퍼져 있다. 우리나라는 영조 갑신년(1764년)에 들어왔는데 칠탄 이광려가 일본에서 얻어 지금 영남의 동래, 부산 등 연해에 심었다. 호남의 태인, 강진의 고금도에도 심었다.”²¹⁾고 한 것도 이광려의 이러한 노력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고구마를 처음 조선으로 들여온 사람은 조엄이다. 조엄의 『해사일기』 1764년 6월 18일 조에 “작년에 쓰시마 사즈내포(佐須奈浦)에 도착하여 고구마를 구해 부산진으로 보냈다.”²²⁾는 기록이 있다. 1764년 기록에 작년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1763년 고구마를 부산으로 보냈음을 알 수 있다. “부사진 첨사 이응혁은 부친의 절친한 친구인 정사 조엄의 부탁을 받고 종자를 받아 소중히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 해(1764년) 봄 절영도의 조도(朝島) 맞은 편 야산에 재배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고구마를 처음 재배하게 된 시초이다.”(김재승 2001, 103-104) 고구마를 조저(趙著)라고도 하는데 이는 조엄이 가지고 온 고구마가 재배에 성공하여 널리 보급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왕조실록』 정조 18년(1794년) 12월 25일에서는 “고구마 종자가 우

余言恐信使之歸 未必能得諸. 如不果得之 又將虛過此年. 吾意萊釜間 必已有傳種在民間者 但其未知爲諸耳. 往彼竊搜 或可得之 恨無人能往耳. 姜生慨然曰吾請往 即使有之 豈不得來. 余問君將何以往 生曰徒步去去. 何憂不到 到何憂不得 但未知有無耳. 時有所親爲密陽宰 又有爲作書萊府者 生乃辭去 手未持行資. 尙著絮南去 日氣漸熱 不知歸期. 事近罄空 種種喫苦可知也. 而行意翩然了無難色 余心奇之. 且無論其得諸種與否也. 四月某日發去 一去更無信息 直至七月欲晦 余病作委頓在室 忽聞窗外足音 問爲誰 應之曰遠客耳. 姜生聲也 不覺身至窓處 推窓視外 生從一人以入 背木櫃置在廳. 見櫃中植物出蔓尺許 治葉搖搖也. 喜不可言 生具言往還事. 前後往來萊釜 所經歷極勞苦. 全荷密陽之饋待 然萊釜地內竟不見諸. 此諸乃信使行回所得 而密陽周旋得之者也. 使行中僅持二本 其一聞往他處. 此則初猶未知死活 密陽爲木櫃植之. 命一隸負之行 中路從櫃中生芽 而葉而蔓今如許矣. 余裁書更謝密陽 卽治庭前地種之. 至八九月 蔓葉甚盛 幾遍數間 旣而聞萊伯新出 而隣人之所親也. 使作書盛言諸事 萊伯果力圖之. 明年諸種多至京 又多留植其地. 而吾庭中所植不善收藏 皆不可作種. 求得數本於萊伯家分種之 諸種之傳於國中始此. 卽乙酉歲也.”

21)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人事篇·治道類·糶糶賑恤」: “甘藷 來自呂宋 流布中國. 我東自英廟朝甲申 七灘李匡呂從倭得來. 今則嶺南之東萊, 釜山等沿海地 間或播種. 湖南之泰仁, 康津之古今島.”

22) 趙曦, 『海槎日記』 卷五 甲申年(1764년) 六月 十八日: “戊戌昨年初到佐須奈浦 見甘藷求得數斗 出送釜山鎮.”

리나라에 나온 것이 갑신년(甲申年, 1764년)이나 을유년(乙酉年, 1765년) 즈음”²³⁾이라고 하고 서유구의 『종저보』에서는 “고구마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영조 을유년(乙酉年, 1765년) 일본에서 비롯되었다.”²⁴⁾고 한다. 위의 두 기록에서는 1764년에서 1765년경에 고구마가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조엄이 1763년 고구마를 부산진으로 보낸 것이 확실함으로 고구마는 1763년에 한반도에 처음으로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763년 고구마가 한반도에 도달한 것은 1584년 중국 남부에 도달한 이후 179년 만의 일이다. 『선화봉사고려도경』에 의하면 “명주와 천주에서 고려로 가는데 선박이 하지 이후의 남풍을 타면 순조로울 경우 5일이면 고려의 해안에 도달한다.”²⁵⁾고 한다. 그런데 『선화봉사고려도경』으로부터 500-600년이 지난 조선시대 중후기에는 5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179년이 소요되어 도달하였다. 물론 고구마가 한반도에 도달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은 수분이 많은 종자를 부패하지 않은 상태로 운반하는 데 따른 어려움, 종자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으려는 심리, 새로운 작물의 식용에 대한 두려움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이지만 고려시기와 같이 해상교류가 활발하였다면 고구마는 훨씬 더 빠른 시일 내에 한반도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의 고구마가 쓰시마에서 들어왔음은 용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조엄은 『해사일기』에서 “쓰시마에 풀뿌리가 있는데 먹을 수 있으며 감저(甘藷) 또는 효자마(孝子麻)라 하는데 일본 발음으로는 고귀마(古貴麻)라고 한다.”²⁶⁾고 기록하였다.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는 “일본에서는 고구마를 고고리문외(古古里文畏)라 한다. 일본방언에서 효자(孝子)를 고고이(古古伊)라 하고 토란을 문외(文畏)라 한다. 예전에 효자가 고구마를 심어 부모를 보양하였는데 고구마가 토란과 같이 생겨 이와 같은 이름을 얻었다.”²⁷⁾

23) 『朝鮮王朝實錄』 正祖 十八年 甲寅 十二月 戊寅: “諸種之出來我國 在於甲申乙酉之際 于今三十餘年 沿海之民傳植者頗多.”

24) 徐有集, 『種藷譜』 「敍源」: “我東傳種 始于英宗乙酉來自日本 蓋番藷也.”

25) 『宣和奉使高麗圖經』 卷3 「封境」: “從明州或泉州去高麗 船船乘夏至以後的南風 順利時不過五日就可達高麗海岸.”

26) 趙曦, 『海槎日記』 卷五 甲申年(1764년) 六月 十八日: “島中有草根可食者 名曰甘藷 或謂孝子麻 倭音古貴爲麻.”

27)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萬物篇·草木類·穀種」: “南藷----倭呼甘藷曰古古里

고 하였다. 서유구는 『종저보』에서 “왜인들이 고구마를 고고이문과(古古伊文瓜)라 불렀다.”²⁸⁾고 기록하고 있다. 여러 문헌에서 고구마가 일본어 발음에서 유래하였음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구마는 쓰시마에서 고구마를 지칭하던 효자마의 일본어 발음에서 유래하였음을 알 수 있다.²⁹⁾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고금도(古今島)에서 고구마를 많이 심기 때문에 고금이(古今伊)라고 한다.”³⁰⁾고 하여 또 다른 설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Ⅲ. 고구마의 유입 과정에 나타난 특징과 동아시아 각국의 해양인식

1. 고구마의 유입 과정에 나타난 특징

동아시아 3국의 고구마 유입과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고구마의 유입은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되었다. 1565년 이후 고구마는 필리핀의 루손에서 중국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여 현재 문헌기록으로 볼 때 1584년 광둥성의 난아오도로 전파된 것이 가장 이른 시기이다. 일본의 경우는 1597년 미야코지마에 유입된 것으로 중국에 고구마가 전해진 이후 13년 만의 일이다. 그후 사적인 루트로는 1625년에, 공적인 루트로는 1698년에 가고시마에 전해졌다. 가고시마보다 10년 이른 1615년에 나가사키에도 고구마가 전해졌다. 1715년에 쓰시마에 고구마가 전해졌으며 17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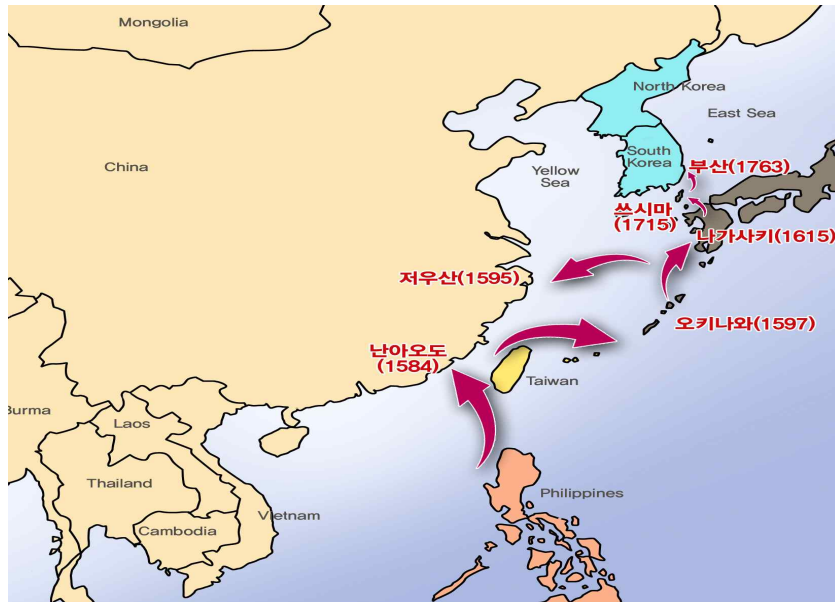
文畏. 倭方言 孝子曰古古伊 謂芋魁曰文畏. 昔孝子始種諸以養親 而諸如芋魁 故我此名.”

28) 徐有集, 『種蔬譜』, 「敍源」: “甘藷倭人呼爲 古古伊文瓜 琉球國呼爲番茄 聞之.”

29) 현재 일본어 발음에서 ‘효자’는 ‘고시’라고 발음되어 ‘고귀’ 또는 ‘고고리’, ‘고고이’라는 발음과 차이가 난다. 효행(孝行)은 ‘고꼬’로 발음되어 고구마는 ‘고꼬마[孝行麻]’라는 말에서 기원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0)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萬物篇·草木類·穀種」: “我東以盛於古今島 稱古今伊.”

에 이르러서야 일본 전역에 퍼지게 된다. 이는 고구마가 오키나와에 전해진 이후 138년 만의 일로 고구마가 일본열도를 통과하는 데 138년의 역사가 필요하였음을 말하는 것이다. 한반도에는 1763년 전해져 1764년 부산 절영도에서 재배되기 시작한다. 한반도에 고구마가 전해진 것은 1584년 처음 중국에 고구마가 전해진 이후 179년 만의 일이었다. 중국 남부지역에서 일본 본토로 유입되는 데 138년, 한반도로 유입되는 데 179년이 소비되었다는 것은 고구마의 이동이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되었음을 말한다.



<그림 1> 고구마의 이동 노선과 시기

둘째, 고구마는 필리핀의 루손에서 중국 광둥성에 도착한 이후 푸젠성을 거쳐 오키나와열도를 따라 북상하여 가고시마와 나가사키에 이른 이후 쓰시마를 거쳐 한반도의 남부인 부산에 이르게 된다. 전체적인 노선은 동남아시아에서 점점이 이어진 섬들을 따라 아주 느린 속도로 북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고구마의 이동에 역할을 한 사람들은 모두 해상활동과 관련이 있

다는 공통점이 있다. 초기 중국에 고구마를 들여온 진진룡은 루손지역에 거주하며 해상무역을 하던 화교였으며 난아오도의 경우에는 서양배에서 고구마 종자를 얻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스나가와신야가 표류한 후에 중국에서 고구마를 가져가거나 노쿠니총관이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가져가게 된다. 나가사키에 고구마를 처음 들여온 사람은 히라도(平戸)에 10년간 머물면서 영국과 일본의 무역을 주도한 히라도상관장(平戸商館長)인 리차드 쿡스였다. 한국의 경우 조엄은 통신사로 쓰시마에 들렀다가 고구마 종자를 얻게 된다. 따라서 초기 고구마의 전래에는 해상세력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한중일 삼국에서 고구마가 처음 재배된 지역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섬지역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는 난아오도이며, 일본은 미야코지마섬이며, 한국은 절영도이다. 이는 16-18세기에 이르는 시기 도서지역이 가장 선진적인 문물이 먼저 도달하는 지역이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16세기에서 18세기는 서양세력들이 해양을 통하여 동아시아로 진출하던 시기로 섬은 각국의 변방에 위치하면서 가장 먼저 외부의 문화와 접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을 하였다. 강봉룡에 의하면 “바다를 세계와 소통하는 통로로 인식하고 활용하는 시대엔 섬은 그 소통의 징검다리로서 기능하게 되고, 바다를 저 세계와 단절시키는 장애물로 여기는 시대엔 섬은 고립의 공간으로 남게 된다. 실제로 해양활동이 활발했던 고려시대까지는 섬이 해양활동의 거점으로 활용되었고 해양활동이 금기시되었던 조선시대는 섬이 공도(空島)의 대상이 되어 고립 공간으로 전락하였다.”(강봉룡 2012, 21)고 한다. 16세기에서 18세기는 서양 주도의 해양교류가 시작되고 동아시아 각국과 마찰이 있던 시기로 이 시기 도서지역은 해상교류의 소통의 장으로서 기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고구마의 유입을 통해 본 동아시아 각국의 해양인식

동아시아로 고구마가 유입되는 과정에 나타난 특징은 해양세력들에 의해 각 나라의 섬들을 경유하여 아주 느린 속도로 전해졌으며 가장 먼저 도서지역에서 재배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고구마의 이동이 당시의 해상활

동과 관련이 있으며 느린 속도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당시 동아시아 사회의 해양교류가 활발하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고구마가 아주 느린 속도로 이동한 이유는 당시 각국의 배타적인 해양인식과 관련이 있다.

중국은 명나라에서 청나라에 이르는 시기 일시적으로 해금정책을 해지하기는 하였으나 일관되게 해금정책을 시행하였다. 해금정책은 명나라 초기부터 실시되었는데 “연해지역의 백성들이 사사로이 해외 여러 나라와 통하는 것을 금하는 것”³¹⁾으로 외국과의 해상교통, 해상무역, 어업 등 일체의 해상활동을 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섬지역의 주민들을 강제로 내지로 이주시키기도 하였다. 명나라 초기 해금정책을 실시한 이유는 동부 연해 지역에서 원말 농민반란군의 잔여세력인 방국진(方國珍), 장사성(張士誠)이 섬으로 숨어들어 왜구와 결탁하여 명나라 정권을 위협하였기 때문이었다. 명나라의 홍무(洪武) 초년(1368년)부터 용경(隆慶) 원년(1567년)까지 200년간 해금정책을 실시하였다.

일부 학자들은 명나라 초기 정화(鄭和)의 원정대(1405-1433년)가 7차례에 걸쳐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30개국을 방문한 사실을 들어 명나라 초기 해금정책이 엄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은 영락제가 정화원정대를 파견한 근본적인 이유를 파악하지 못한 결과이다. 영락제가 정화원정대를 파견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영락제는 조카인 건문제(建文帝) 주윤문(朱允炆)에게 황제 자리를 강제로 빼앗았기 때문에 정화의 원정을 통하여 해외지역의 승인과 귀족들로부터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둘째, 난징(南京)을 침입하여 궁전을 불살랐을 때 건문제의 종적을 찾을 수 없었는데 건문제가 해외로 도망을 갔다는 소문이 있어 영락제는 정화를 파견하여 찾도록 하였다. 셋째, 명왕조의 국제적인 명성을 높이고 봉건제왕의 군주천하(君主天下), 어림만방(御臨萬方)의 허영심을 채우고 상층계급의 이익의 진기한 물건을 향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였다.”(孫光圻 2005, 381-383) 영락제가 거금을 투자하여 원정대를 파견한 것은 사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해상교류를 강화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명나라는 대국의 자만함으로 만리

31) 『明太祖實錄』 卷139: “洪武十四年 十月己巳 “禁瀕海民私通海外諸國.”

장성을 축성하고 바다를 봉쇄하여 견고한 자신들만의 성을 쌓았으나 결국 명나라 장군 오삼계(吳三桂)가 열어준 산하이관(山海關)을 통해 진입한 8만 만주족 병사에 의해 대명제국은 멸망하게 된다.

고구마가 중국 땅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도 왜환을 기본적으로 평정한 후 가정(嘉靖) 말년, 즉 1567년에 해금을 취소하였기 때문이었다. 명나라의 마지막 17년 동안 이전에 없던 해외무역이 번성을 이루었으며 이 시기 고구마는 중국 땅에 유입될 수 있었다.

청나라 정권이 명나라 부흥운동을 일으킨 정성공(鄭成功) 세력을 고립시키기 위해 다시 해금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명나라 말기 동남연해지역의 해외무역은 중지되었으며 명나라 후기 변영한 상품경제는 도태되었다. 청나라 정부는 일시적으로 해금을 취소한 경우도 있으나 계속적으로 해금과 천해정책(遷海政策)을 실시하여 점점 더 쇠국정책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15세기 중엽에서 19세기 중엽은 세계 역사상 봉건주의가 붕괴하고 자본주의가 생산, 발전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처한 명나라와 청나라 왕조는 과거의 것을 수호하며 변혁을 거부하고 시대를 거슬러 행동하였다. 통치자들은 국내의 자본주의 맹아가 성장하는 것을 억압하고 쇠국정책을 폈다. 결국 중국은 아편전쟁 이후 반봉건 반식민지의 상태로 들어서게 되었다.”(孫光圻 2005, 422)

그 결과 저우산의 고구마가 푸젠성이 아닌 일본에서 역수입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1595년에 간행된 『보타산지』에 의하면 “고구마는 일본에서 왔다.”³²⁾라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일부 청나라시기 지방지에도 전하고 있다.³³⁾ 저우산의 고구마가 일본으로부터 들어왔다는 것은 실제로 일본에서 들어왔다기보다는 후기왜구의 활동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명나라시기 왜구는 전기왜구와 후기왜구로 구분되는데 “후기왜구는 해상무역을 하던 중국인이 중심으로 일부 일본인을 고용하였는데 이들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으로 후기왜구는 중국 내부의 해금 반대 투쟁이었다.”(樊樹志 2000; 林仁川 1980; 戴裔煊 1982; 王守稼 1990)고 한다. 후기왜구 중 가

32) 『普陀山志』(1595): “番薯來自日本.”

33) 王夢弼 편찬, 『鎮海縣志』 卷四「物產」: “番薯---來自日本.”; 曹膏 외 편찬, 『奉化縣志』 卷六「物產」: “番芋種來自日本.” (郭松義 (1986), 「番薯在浙江的引種和推廣」, 『浙江學刊』 1986年 3期, p. 45 재인용)

장 이름을 날린 이는 왕직(王直)으로 “1544년 일본 공사(貢使)를 따라가 일본에서 상업에 종사하였으며 다음해 3명의 일본 상인을 데리고 쌍위항(雙嶼港)에 와서 무역을 하였다.”(錢茂偉 2008) 당시 쌍위항에서는 중국, 포르투갈, 동남아, 일본의 해상들이 집결하는 국제무역항이었을 뿐만 아니라 왕직과 같은 후기왜구들도 해상무역에 종사하였다. 후기왜구는 공식적으로는 1566년 진압되었으나 “저우산 지역에서 가장 심하게 소란을 피운 시기는 1540-1601년으로”(王建富 2002, 38) “푸튀산(普陀山)과 선자면(沈家門)은 왜구와 싸우는 전장이 되어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승려들을 쫓아내고 암자를 부수었으며 명 만력 중후기 왜구가 기본적으로 소멸되면서 푸튀산이 회복되었다.”(王連勝 2012, 51) 후기왜구가 저우산에서 소란을 피운 “1540-1601년 사이에 고구마가 저우산으로 들어왔을 것으로 보인다.”(王建富 2002, 38) 저우산은 고대 동아시아 각국과 동남아로 운행하는 선박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간기착지였으나 왜구가 저우산을 비롯한 동남연해지역을 장악하게 됨에 따라 중국 내의 해상교류는 단절되었다. 따라서 푸젠성의 고구마는 해상을 통해 저우산으로 전해질 수 없었고 왜구들에 의해 전해졌으며 문헌에 “고구마가 일본으로부터 전해졌다.”는 기록이 남게 되었다. 후기왜구가 명나라 정부의 해금정책에 반대하는 해상세력이었다는 견해를 따른다면 “저우산의 고구마가 일본으로부터 전해졌다.”는 것도 해금정책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조선도 고려 말부터 왜구에 대한 대처를 위해 그리고 책봉조공관계에 있던 명칭의 영향으로 인해 일찍부터 해금을 단행하면서 해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쳤다.”(우인수 2007, 117) 조선은 이미 1413년 “사사로이 바다로 나가 이익을 도모하는 자(私自下海興利者)를 금지하라는 명을 내린 바 있었다. 1422년 조선은 해양으로 나가는 배를 7-8척이 되어야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1426년부터는 아예 바다로 나가지 못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규제하였다. 그리하여 대명률과 수교(受敎)에 근거하여 사사로이 국경 근처에서 무역하거나 바다로 나간 자는 곤장 1백에 처하게 하였다(私出外境貨賣及下海者 杖一百). 이처럼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대명률을 준용하여 사적인 출해와 무역을 통제하였다(민덕기 2011, 113-116). “조선왕조는 도서민을 내지에 사민(徙民)시켜 왜구의 피해를 최

소화하도록 하고 연해의 방비를 철저히 하며 연해민과 왜인의 접촉을 금하였으며 나아가 어민의 원양항해를 금하는 정책을 취하였다.”(임영정 1997, 51)

중국보다 더 철저한 해금정책을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 왕국은 중국의 속국이다. 우리는 중국의 척허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법률이다. 여태까지 우리는 외국과 교섭한 일이 없다. 어떻게 지금까지 없었던 교섭을 감히 할 수 있단 말인가?”(Gutzlaff Charles 1834, 348-350; 김원모 2004, 986 재인용)라며 모든 교류를 거절하였다. 박제와 같은 북학파가 “일본과 류큐, 안남, 서양의 나라조차도 모두 민(閩)·절강(浙江)·교주(交州)·광둥(廣東) 등지에서 교역한다. 저 여러 나라들과 함께 끼고 싶다.”³⁴⁾고 외쳤으나 조선정부는 하멜과 같은 서양지식인을 강진의 병영에서 풀어나 뽑게 하였다. 깊고 깊은 폐쇄와 은둔의 세계로 빠져들어 고려시기라면 5일 만에 도달할 수 있었던 고구마가 179년 만에 도달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조선은 열강들의 전장이 되었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일본도 조공책봉체제 속에 포함되어 중국과 제한적인 조공무역을 실시하였으나 일본의 경우는 조선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해금정책은 17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야 그 체제가 완성된다. 이는 시기적으로 중국에서 14세기 후반, 조선에선 15세기 초반에 시작되고 구체화하는 것과 비교된다. 또한 조선과 명나라와는 그 내용이 다르게 일본의 해금은 대외적으로 조공무역이 아닌 사무역을 동반하고 있으며 화이(華夷)인식이 배제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민덕기 2011, 125-126) “일본의 해금정책은 실제로는 고립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외교 이외에 무역의 권한을 도쿠가와 막부가 제한, 관리한 체제로서 조선, 류큐, 중국, 네덜란드와는 교류가 있었다. 에도시대 나가사키에서는 중국, 네덜란드 상인과의 무역이 행해졌다. 그런데 무역의 형태는 사무역이었다.”(민덕기 2011, 117-118) 서양인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는데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는 1600년 영국인 애덤스를 외교고문으로 채용, 과감하게도 문호개방정책을 채택,

34) 朴齊家, 『北學議』 「外編·通江南浙江商舶議」: “日本, 琉球, 安南, 西洋之屬 亦皆交市於閩浙交廣之間 願得與諸國齒.”

나가사키에 화란상관을 개설(1609년) 국제무역항구로 육성했다. 일본은 오랑캐에게도 배워야한다는 사이정신(師夷精神)을 발휘 란가쿠(蘭學)을 일으켜 서구 과학문명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명치유신(1868년)을 일으켜 근대화에 성공하여 아시아의 제패국이 되었다.”(김원모 2004, 999)

일본은 해금정책이 늦은 시기에 정착하였고 사무역을 동반하였으며 화이정신을 배제한 사이정신을 발휘하여 가장 개방적인 해양정책을 실시하였다. 비록 고구마의 경우 일본열도를 통과하여 혼슈에 도달하는 데 138년이 걸렸으나 나가사키의 경우 영국인에 의해 고구마가 1615년 유입된 바와 같이 개방적인 해양정책에 의해 서구 선진문물이 계속적으로 일본의 문을 두드릴 수 있었다. 따라서 작물에 따라서는 중국보다 일찍 들어온 경우도 있고 직접 서양으로부터 수입한 경우도 있다. “감자는 1630-1640년 네덜란드에서 중국으로 들어왔는데 일본은 네덜란드에서 직접 들어와 중국보다 39년이 빠르고, 옥수수는 1530년 중국에 들어왔으며 일본은 49년 후 직접 포르투갈에서 유입하였다.”(潘吉星 1992, 239-240)

IV. 결론

위의 논의를 통하여 16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는 시기 동아시아 각국의 고구마가 유입되는 시기와 과정은 각국의 해양정책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필리핀의 루손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으며 서구열강이 강렬히 원하던 도자기와 비단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남연해안에는 경험이 풍부한 많은 해상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명나라의 지속적인 해금정책은 고구마가 유입될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결국은 해금을 잠시 해지한 명나라 말년에 고구마는 중국 남부지역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청나라에 들어서면서 다시 해금정책을 실시하게 되고 고구마는 더 이상 해상을 통해 북상하지 못하였고 저우산의 고구마는 당시 해상을 장악한 왜구로부터 들어오게 된다. 고구마는 비록 이른 시기에 도달하였으나 해금정책으로 인하여 북상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으로 선진문물이 해금정책으로 인하여 원

활하게 유입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선의 경우 조공책봉체제의 틀 속에서 명칭보다 더 강력한 해금정책을 시행하여 세상과 통할 수 있는 통로는 오로지 동북지역의 육로만을 열어 놓았다. 조공단을 통한 간헐적인 교류만으로는 세상의 변화를 감지할 수 없었고 조선 중후기에 이르면서 더욱 강력한 사대정신을 기반으로 스스로 소중화라 부르며 폐쇄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결국 서양세계에 조선은 은둔의 나라로 알려지게 되었다. 모두가 바다를 통해 교류하던 시기에 조선은 홀로 바다를 닫고 좁고 느린 육로를 통해 오직 중국과만 교류하였고 고구마와 같은 선진문물은 좀처럼 조선으로 유입될 기회를 잡지 못하였다. 결국 고려시기라면 중국 남부에서 한반도까지 5일만이면 도달할 수 있었던 고구마가 179년이 걸려 조선에 도달하는 결과를 낳았다. 일본의 경우는 해금정책이 비교적 늦은 시기에 시작되었으며 사무역을 동반한 조공무역의 형태로 중국이나 조선과는 다른 개방적인 형태였다. 또한 조선과는 달리 화이정신이 배제되었으며 오랑캐에게도 배워야 한다는 사이정신을 기반으로 서양과 적극적인 교류를 하였다. 일본이 이와 같이 서구열강과 해상교류가 가능하였던 것은 조선이나 중국과 달리 해양국가였다는 지리적 특징도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와 같은 각국의 해양정책은 결국 고구마와 같은 중요 작물, 즉 선진문물의 수용에 대한 시각의 차이를 낳았고 결국은 각국의 운명을 갈라놓았음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

- 朴齊家. “外編·通江南浙江商舶議.” 『北學議』.
- 徐有榘. 『種藷譜』.
- 徐有榘. “穀源.” 『種藷譜』.
- 成海應. “筆記類·蘭室譚叢.” 『研經齋全集』. 外集. 卷五十九.
- 柳重臨. “甘藷種植法 自倭國傳來.” 『增補山林經濟』. 卷二.
- 李匡呂. 『李參奉集』. 卷四.
- 李圭景. “萬物篇·草木類·穀種.” 『五洲衍文長箋散稿』.
- 李圭景. “人事篇·治道類·糶糴賑恤.” 『五洲衍文長箋散稿』.
- 『朝鮮王朝實錄』. 正祖 十八年 甲寅 十二月 戊寅.
- 趙曦. 『海槎日記』. 卷五. 甲申年(1764) 六月 十八日.
- 『顯宗改修實錄』. 四年(1663) 七月 六日.
- 강봉룡 (2012). “‘목포권’ 도서해양문화의 변천과 전망.” 『목포권 다도해와 류큐열도의 도서해양문화』. 민속원, p. 21.
- 곽상수 (2013). “250년 전 고구마가 부산 영도에 도착한 사연 ‘고귀마를 조선 팔도에 퍼뜨려라.’” 『과학동아』.
- 김승일 (2008). “역사·종교·전쟁-고구마.” 『한맛한얼』. pp. 41-42.
- 김영진 (1982). 『農林水産 古文獻 秘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 112.
- 김원모 (2004). “19세기 韓英 航海文化交流와 朝鮮의 海禁政策.” 『文化史學』. 21호, p. 986.
- 김재승 (2001). “고구마의 조선전래.” 『동서사학』. 제8집.
- 노성환 (2010). “조선통신사와 고구마의 전래.” 『동북아문화연구』. 제23집, p. 545.
- 민덕기 (2011). “중·근세 동아시아의 해금정책과 경계인식-동양삼국의 해금정책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39집.
- 우인수 (2007). “조선후기 해금정책의 내용과 성격.” 『한중일의 해양인식과 해금』. 동북아역사재단, p. 117.
- 임영정 (1997). “조선전기 해금정책 시행의 배경.” 『동국사학』. 제31집, p. 51.
- Gutzlaff Charles (1834). Journal of Voyages Along The Coast of China, in 1831, 1832, & 1833, With Notices of Siam, Corea, And The Loo-Choo Island. London:Frederick Westley And A. H. Davis. August 7, pp. 348-350.
- 『桂平縣志』. 卷19.

- 龔顯曾. 『亦園勝牘』. 卷六.
『金薯傳習錄』.
“記述.” 『電白縣志』. 卷30. 光緒 18年版.
金學曾. 『海外新傳七則』.
『東山縣志·民國稿本』.
『明太祖實錄』. 卷139. 洪武十四年 十月己巳.
“物產續纂.” 『惠安縣續志』. 卷一.
『普陀山志』. 卷4.
『鳳岡陳氏族譜·陳益傳』.
“封境.” 『宣和奉使高麗圖經』. 卷3.
王夢弼 (編). “物產.” 『鎮海縣志』. 卷四.
曹膏 外 (編). “物產.” 『奉化縣志』. 卷六.
周亮工. 『閩小記』. 卷三.
葛劍雄 (1991). 『中國人口發展史』. 福建人民出版社.
姜濤 (1998). 『歷史與人口-中國傳統人口結構研究』. 人民出版社.
郭松義 (1986). “番薯在浙江的引種和推廣.” 『浙江學刊』. 3期.
戴裔煊 (1982). 『倭寇海盜與中國資本主義的萌芽』. 中國社會科學出版社.
林仁川 (1980). “明代私人海上貿易商人與倭寇.” 『中國史研究』. 第4期.
潘吉星 (1992). “中國傳入朝鮮的四種美洲原產農作物.” 『情報學刊』. 3期.
樊樹志 (2000). “倭寇新論-以嘉靖大倭寇為中心.” 『復旦學報(社會科學版)』. 第1期.
孫光圻 (2005). 『中國古代航海史』. 海軍出版社, pp. 381-383.
王建富 (2002). “舟山, 中國最早引種番薯的地方.” 『中國地名』. 第2期.
王連勝 (2012). “嘉靖間沈家門與普陀山成為抗倭重地萬曆未隨着普陀山重建沈家門才得以蘇復.” 『普陀文史』. 4月. 第5期, p. 51.
王守稼 (1990). 『封建末世的積淀和萌芽』. 上海人民出版社.
王育民 (1995). 『中國人口史』. 江蘇人民出版社.
錢茂偉 (2008). “雙嶼港(Proto Liampo)歷史新探.” 『浙江海洋文化與經濟』. 第2輯. 海洋出版社.
陳橋驛 (1994). “開發海洋, 利用海洋——評『普陀縣志』.” 『中國地方志』. 第4期.
陳立立 (2007). “遠洋陶瓷貿易與番薯的引種.” 『農業考古』. 第3期.
何炳棣 (1979). “美洲作物的引進, 傳播及其對中國糧食生產的影響(三).” 『世界農業』. 6期, p. 23.
何炳棣 (1985). “美洲作物的引進, 傳播及其對中國糧食生產的影響.” 『歷史論叢』. 第5輯. 齊魯書社.

『球陽·尙寧王』.

内林政夫 (2006). “コロンブス以前からポリネシアにあったサツマイも一概観.” 『藥學雜誌』. 126. 日本藥學會, p. 1348.

上野益三 (1973). 『日本博物學史』. 平凡社, p. 301.

坂井健吉 (1999). 『ものと人間の文化史 90. さつまいも』. 法政大學出版局, p. 33.

| 논문투고일 : 2014년 04월 22일 |

| 논문심사일 : 2014년 05월 19일 |

| 게재 확정일 : 2014년 06월 17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1. No. 2 (2014)

East Asian Nations' Awareness on Ocean during the 16-18th Century Perceived from Transfer of Sweet Potatoes

In-Hee Kim

(Mokpo Institution for Marine and Island Cultures,
National University)

During the 16th to 18th century, the world exchanged with each other through the ocean, and sweet potatoes were transferred to the oriental society in the process that the western powers advanced to the east. The point where sweet potatoes first were transferred was Nanao-island(南澳島), China in 1584. Afterwards, Ryukyue, Japan in 1597, Tsushima in 1715, and Joseon in 1763. The characteristic that appeared in the process of transferring sweet potatoes to the orient three countries was moving slowly by using Island area as stepping-stones, which were continued one by one in the Southeast Asia, and all of those who took the key role of transferring sweet potatoes were maritime powers. Therefore, by investigating the inflow process of sweet potatoes, each of East Asian nation's awareness on ocean and marine policy of that time could be comprehended.

China was positioned as the most profitable position in sweet potatoes inflow, in geographical, economic, and political aspects, however due to the continuous the ban on maritime trade policy(海禁政策) during the Ming-Qing dynasty, Fujian Province(福建省)'s sweet potatoes could not be transferred to Zhejiang Province(浙江省)'s

Joushan-island(舟山島), rather it resulted in reimportation from Japan. This is not mere a characteristic that appeared in the inflow of sweet potatoes, but it can be said to be a symbolic event that the ban on maritime trade policy acted as an obstacle in accepting advanced civilization. In case of Joseon, the nation enforced stronger the ban on maritime trade policy than Ming·Qing dynasty in the frame of tribute installation system, and became the most unknown hermit nation in the world, by implementing only limited exchange with China by land. Eventually, the sweet potatoes which could have arrived in five days during Koryo Dynasty, took 179 years to arrive in the mid and late Joseon Dynasty. In case of Japan, it implemented an open maritime polity with the spirit to learn from barbarians, excluding Hua Yi spirit (華夷精神), so that advanced civilization e.g. sweet potatoes, etc. could arrive earlier.

Finally, each nation's awareness on ocean resulted in the difference in the view of the acceptance of important crops as sweet potatoes, i.e. advanced civilization, which eventually divided destiny of each nation.

- Key words: Sweet Potatoes, Western Powers, East Asia, Island Area, Marine Recognition